

전시회 소식

ITM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섬유기계협회(회장 손종규)는 6월 14일 ~ 6월 18일 터키 이스탄불 TUYAP Fair Convention and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된 ITM 2022 전시회에 협회 회원 업체 7개사와 참가하여 442만불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상북도 지원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경상북도 소재 6개사 포함 7개사는 (주)구일기계공업(날염기), (주)대일테크(염색기), (주)미광기계(가공기), 부광테크(부직포 생산용 기계), (주)삼화기계(부직포 생산용 기계), (주)에이스기계(염색기), (주)이화에스알씨(제직준비기) 등으로 전체 상담 실적은 6,078만불이었으며, 추가 계약이 예상되는 1,600만불 상당을 포함하면 약 2,000만불을 상회하는 계약이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 터키 섬유기계시장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많은 관람객과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들과의 구매상담으로 활기가 넘쳤으며, 특히 터키 바이어에 더해 이란, 이집트, 인도,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부터 입국한 바이어들과의 상담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시회 개막일인 6월 14일(화)에는 이번 전시회의 공동주최기관이기도 한 터키섬유기계협회(TEMSAD)의 부스에서 「한국섬유기계협회와 터키섬유기계협회간의 업무협약서(MOU)」 및 「KORTEX 2023 전시회(2023.03.08. ~ 03.10) 개최에 따른 해외 참가업체 모집 등을 포함한 포괄적 에이전시 계약서(EXCO-KOTMA-TEMSAD)」에 손종규 회장과 터키섬유기계협회의 Adil Nalbant 회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섬유기계 및 부속품 제조 산업의 정보 공유와 양국 간의 협력 등을 포함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양국 섬유기계 및 부속품 산업의 협력과 무역 촉진, 기술 이전, 교육, 정보 교환, KORTEX 전시회와 ITM 전시회 상호

참가 및 참관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이며, 터키섬유기계협회는 한국섬유기계협회 회원 업체의 원자재, 기계, 장비, 부품 등의 조달 및 채무 추심, 고객 발굴,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와 현지 유력 바이어들과의 한·터키 수출상담회도 6월 16일(목), Ramada Hotel에서 개최되었다. 본격적인 수출 상담에 앞서 (주)이화에스알씨(대표 손종규)와 터키 Ersat Tekstil Konfeksiyon San Ve Tic Ltd. 간의 1,812,000 유로에 대한 제품구매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수출상담회에 한국 전시회 참가업체 대표와 실무자 및 현지 유력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하여 심도 있는 상담이 진행되었다.



KOTMA와 TEMSAD와의 MOU 체결 현장



수출상담회 현장

∴ 무역 및 시장정보

▪ 방글라데시, 환율 및 물가 상승으로

주요 경제지표 악화 우려

방글라데시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월 5.86%, 2월 6.17%, 3월 6.22%에 이어 4월에는 6.29%를 기록함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식료품 부문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비식료품 부문의 물가가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예상 평균 환율은 1달러당 92.0타카로 평가절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카화는 수출 부진으로 2012년 1달러당 81.9타카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수출 회복, 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 해외 근로자 송금 확대 등에 힘입어 2013년에는 1달러당 78.1타카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이후 무역적자 확대로 타카화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여 2022년 6월 8일에는 1달러당 92.0타카까지 하락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도 외환보유고 감소 및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할 정도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밝다. 2022년 6월 8일 기준 1억678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방글라데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가처분 소득 증대 등으로 중장기적 내수시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망 제조업 분야 투자진출도 검토해볼 만하다.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



▪ 베트남 제조업 성장률 1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의 제조업 성장세가 빨라졌다. S&P 글로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월 구매관리자지수 (PMI) 는 4월 51.7에서 54.7로 상승했다. 증가율은 2021년 4월 이후 가장 빨랐다.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기업들이 구매 활동과 고용을 증가시켜 업황이 1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강화됐다. S&P 글로벌의 앤드루 하커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 제조업체들은 팬데믹 대란이 잦아들면서 생산량 및 신규수주 증가가 급격히 가속화돼 고용과 구매가 활성화되는 등 정상 가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규 주문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고용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완화될 조짐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실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속도였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베트남의 지난 5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작년과 같은 기간의 1.29배에 해당하는 2.25%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치솟는 운송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연료비 상승을 강조했다. 중국 주요 도시들의 폐쇄도 수출 수요가 완화되고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영향을 미쳤다. 하커는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의 사업도 곧 정상 범주로 돌아와 베트남 시장의 회복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S&P 글로벌 베트남 제조업 PMI는 수치가 50을 넘으면 전월 대비 제조업이 확대됐음을, 50을 밑돌면 수축을 의미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2022년 1 ~ 4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743,271	270,956
국 가 별	중 국	38,866	142,723
	미 국	398,420	2,830
	일 본	5,784	12,381
	베트남	46,161	56,631
	유럽(계)	30,694	21,508

∴ 산업계 소식

■ 한국무역협회, 해상화물 표준 계약서 개정본 배포

한국무역협회가 6월 8일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 장기운송 계약서 (이하 표준계약서)」 개정본을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내 수출입 물류포탈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화주와 선사가 3개월 이상의 수출화물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 우대 조건 ▲최소 운송 물량의 보장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시 운임 및 요금 협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이 화주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그 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운임 급등과 선박 스케줄 차질로 화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무역협회는 안정적인 선복 및 운임 제공이 가능한 장기 운송계약을 독려하기 위해 해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본에서는 앞으로 선사가 스케줄 변경 또는 운송 장비 부족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도 즉각 화주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선사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정식 계약기간으로 간주토록 해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무역협회 이준봉 물류 서비스 실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국적선사와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국내 장기 운송계약 문화가 활성화되고 선·화주 간 투명한 계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회원사 동정

■ 일성기계공업, 고압 증기 텐터기 개발 및 공급

각종 에너지 및 유틸리티 비용 상승으로 섬유염색가공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에선 50% 이상 사용 중이라는 「고압 증기 텐터기」가 국내에 처음 보급된다.

현재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내 60여 곳 이상 업체들에게 스팀을 공급 중인 열병합발전소 운영사 (주)GS포천그린에너지 (대표 임철현) 와 텐터기 제조업체 일성기계공업(주) (대표 김재영) 이 개발한 「고압 증기 텐터기」는 최초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공급된 스팀을 텐터 전 적정온도까지 올리기 위한 별도의 승온 과정이 생략되어, 보일러가 사라지고 동시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의 압력과 온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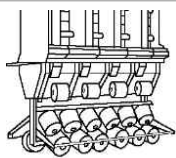
개발된 텐터기는 이미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섬유업체인 (주)휴먼텍스 (대표 김용복) 에서 4개월 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성기계공업은 고압 증기 텐터기를 제작공급하고, GS포천그린에너지는 고압 증기 텐터기 교체 및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후략>

링크 <https://www.tinnews.co.kr/22854>



휴먼텍스 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고압 증기 텐터기

<출처 : TIN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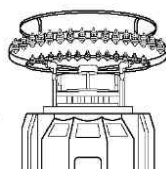


KOTMA 한국섬유기계협회 회원가입 안내

담당 : 조성환 상무이사

문의 : 053-817-5954

대상 : 섬유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사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KOTMI, 섬유산업 자동화 협의체 개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원장 성하경, 이하 KOTMI)은 6월 2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산업 로봇·AI자동화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산업이 인건비 상승, 열악한 근무환경 기피 현상, 작업자의 고령화,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 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로봇이나 AI를 접목한 생산자동화의 높은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국내 섬유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9개 협회 및 기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이상운),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조창섭),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조정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박만영),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강철호), 대한방직협회 (회장 김 준),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회장 민은기),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 한준석),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 방윤혁)이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KOTMI에서 기관별 소개, 섬유산업 로봇도입 실증사례, 2022년 표준모델 및 장비로봇 사업 등 섬유업계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기관별로 섬유산업 로봇·AI 생산자동화 구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며 행사를 마쳤다. 협회 및 기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향후 로봇 도입 필요 공정 공유, 협회 및 기관별 지원 사업 내용 공유, 애로사항 공유, 섬유산업 로봇도입 사례 홍보 및 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생산자동화 시스템을 기존 공장에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공장 신설 및 설비 구축 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로봇 도입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KOTMI는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을 통해 섬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위험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022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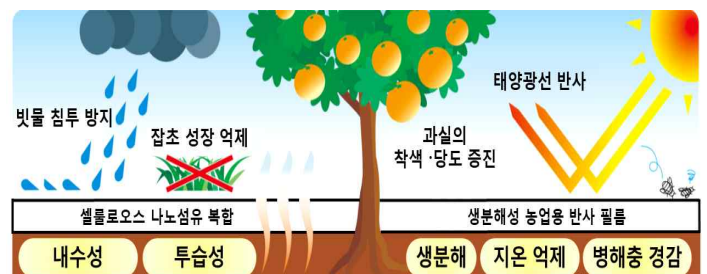
KOTMI 이재용 센터장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 보급 실증사업 및 플러스사업을 통해 섬유 관련 제조현장에 표준공정모델을 도입하겠다. 그와 함께 AI를 접목한 생산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대한민국 섬유산업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TIN 뉴스>

■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복합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개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센터에서는 한스인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친환경 나노섬유 복합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용 필름은 잡초 성장을 억제하고 과수 작물의 색도와 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토양의 통기성을 억제하고 지나친 지온 상승을 야기하며 사용 후에는 수거 및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복합 통기성 생분해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Cellulose Nanofiber, CNF)는 천연 소재인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하여 폭이 100nm 미만으로 제조된 나노섬유로 높은 종횡비, 우수한 결정 특성으로 인한 고강도, 고탄성의 특징이 있어 생분해성 고분자에 첨가하면 생분해성을 유지하면서 적은 함량으로도 기계적 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통기성이 부여된 생분해 필름 제조기술과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용 필름에 통기성, 생분해성, 내구도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농작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거 및 폐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복합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예시

<출처 : 바이오융합연구센터 금아람 선임연구원>